

# 美 화웨이 제재에...“삼성폰 반사이익”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이어지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및 중국 화웨이 상위 제조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스마트폰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3위 업체로, 특히 중국 본토에서 두터운 사용자층을 거느리고 있다. 제품 라인업도 프리미엄급부터 저가형까지 고루 갖춰, 성장 잠재력이 시장에서 빠른 출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구글은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오픈소스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의 기존 스마트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 중 수출 비중 49%

美기업 서비스 못 받으면 수출 타격 불가피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시장서 삼성 수혜 전망

폰은 OS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향후 출시되는 신제품은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할 수 없으니 지메일, 유튜브, 크롬 등 구글의 전용 앱도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

구글의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면 향후 화웨이는 수출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기존에도 구글플레이를 사용하지 못 했으며 현지 모바일 서비스는 바이두나 텐센트 등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유럽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유튜브, 지메일 등이 필수적인 콘텐츠다.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 스마트폰의 지역별 출하량 비중은 아시아 61%, 유럽 22%, 남미 8%, 북미 0.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출하량에서 내수만 따지면 51%로 수출되는 출하량의 비중이 49%에 달한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장기화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면 하이엔드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 로우엔드 영역에서는 삼성전자, 오포(OPPO), 비보

(Vivo), 샤오미(Xiaomi) 등 상위권 업체 중심의 반사 수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애플도 중국 내수 시장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 매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애플 아이폰의 지난해 중국 출하량은 369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연구원은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삼성전자가 화웨이와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라며 “특히 플래그십 마켓인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될수록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타케무라 노부유키(오른쪽) 토요타 코리아 사장과 사에키 요시카즈 수석 엔지니어가 21일 서울 용산구 토요타 용산전시장에서 토요타 '뉴 제네레이션 RAV4'를 발표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토요타, 신형 라브4 출시

### “30~40대 남성들 겨냥”

월 300대 판매목표 제시

토요타코리아가 '뉴 제네레이션 라브4'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토요타코리아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한강대로에 있는 토요타 용산전시장에서 개최된 기자 발표회를 통해 신형 라브4를 소개하고 판매 시작을 알렸다.

6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신형 라브4는 '운전의 다이내믹함과 강력함, 정교함, 세련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라브4는 1994년 첫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대수 약 896만대를 달성했다. 토요타코리아는 신형 라브4의 목표 판매 대수 월 300대를 제시했다. 기존 판매량 170여대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타케무라 노부유키 토요타코리아 사장은 “토요타 라인업의 대표 모델인 라브4는 한국에서도 2009년 도입 이후 많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신형 라브4 기술력과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적이고 폭넓은 라인업을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형 라브4는 토요타의 '보다 좋은 차 만들기'를 위한 혁신인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플랫폼이 적용돼 저중심·경량화·고강성화를 실현하며, 뛰어난 주행안정성과 민첩

한 핸들링을 선보인다. 또한 강인한 스타일과 뛰어난 공간성으로 라브4만의 개성도 한층 강화했다.

“크로스 옥타곤” 컨셉의 입체적인 구조가 돋보이는 외관 디자인은 대담하고 강렬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이미지를 전달하며, 역동적이고 날카로운 눈매의 LED 헤드램프와 다각형 디자인의 휠 아치는 모험적인 스타일링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탑재된 2.5L 다이내믹 포스 엔진을 통해 힘있고 직관적인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된 e-CVT는 효율적인 연비와 탄탄한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AWD 모델은 후륜의 구동력 배분이 더 증대된 전지식 4륜구동 시스템(E-4)으로 뛰어난 주행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트레일 모드' 기능은 험로 탈출을 보다 쉽게 도와준다.

강대한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최근 미세먼지 이슈 등으로 인해 검증된 하이브리드 성능 충실한 옵션의 하이브리드 SUV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객들의 니즈라며 “더프린 자신의 매력을 정체되고 세련되게 즐기는 30~40대 남성들이 주요 타겟”이라고 설명했다.

라브4의 국내 판매가격은 가솔린 2WD 3540만원, 하이브리드 2WD 3930만원, 하이브리드 AWD 45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 “필요한 만큼만”...소용량 음료 판매 증가

한번에 마실 수 있는 용량 · 휴대성 · 저렴한 가격 등

갈증이 날 때 필요한 만큼만 한 입에 마시기 좋은 소용량 탄산음료나 생수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2018년 선보인 160ml 용량의 초미니 탄산음료 ‘칠성미니’와 ‘펍시콜라 미니’의 지난해 판매량은 약 230만켤, 150만켤으로 전년 대비 약 200%씩 증가했다.

미니 캔은 기존에 주력으로 판매되던 250ml 제품보다 용량을 40% 가량 줄여 휴대성과 음용 편

의성을 강조한 소용량 제품이다. 올해 들어 지난해까지 이들 제품의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0% 150%씩 증가하는 등 10여 가지 용량의 제품 중 성장세가 가장 돋보였다. 롯데칠성음료의 설명이다.

생수 역시 소용량 제품의 판매가 두드러졌다. ‘아이시스8.0’ 200ml 및 300ml 제품의 지난해 매출은 약 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가량 증가하면서 아이시스8.0의 전체 매출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성과를



거뿔었다. 올해도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탄산수 제품인 ‘트레비’도 기존에 주력으로 판매되던 500ml 용량의 매출 비중은 줄어든 대신 300ml ▲남기지 않아 낭비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을 꼽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소용량 제품의 성장 요인으로 ▲개봉 후 신선한 상태로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알맞은 용량 ▲편리한 휴대성 ▲인기가 증가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 ▲남기지 않아 낭비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을 꼽고 있다.

뉴스스



전자랜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초미풍 선풍기와 에어서큘레이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 “초미풍 선풍기 · 에어서큘레이터 인기”

이른 더위에 판매 증가세

5월 초 시작된 이른 더위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초미풍 선풍기와 에어서큘레이터 판매도 일찌감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전자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랜드가 PB제품으로 출시한 ‘아나 초미풍 선풍기’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60% 증가했다. 초미풍 미풍, 약풍, 강풍 등 4단계 바람 세기로 산들바람 같은 부드러운 바람부터 강한 바람까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록한 제품이다.

초미풍 선풍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으로 부드러운 바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에어서큘레이터의 판매량도 지난 1~14일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전자랜드는 에어컨 구매가 많아지면서 효율적인 냉방을 돕는 에어서큘레이터도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선화 전자랜드 MD는 “초미풍 선풍기가 출시되면서 성장률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